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9**

통권 제57호

**現代經濟研究院**



제57호

통 권 제57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9월 10일  
발행인 김중웅  
편집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경균 유병규  
김선희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5

<b>편집자의 글</b>	
남북 경협의 새로운 분위기	3
<b>포커스</b>	
낙관할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 노재현	4
<b>특집</b>	
북한의 경제 정책, 변하고 있는가	
농업 정책 · 권태진	10
대외 무역 정책 · 임강택	16
외자 유치 정책 · 박정동	24
<b>경협정보</b>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I) : 조세제도 · 활동언	30
<b>논단</b>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현안과 대응 · 송대성	4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 김영태	60
<b>북한경제</b>	
북한 수산업의 구조와 실태 · 신영태	76
<b>인물초점</b>	
독일 통일의 주역들(IV) :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수상 등의 정치인들 · 박상봉	86
<b>독자기고</b>	
디지털시대와 북한 지역 경제 재건 전략 · 이봉호	94
<b>자료</b>	
1998년도 북한 GDP 추정 결과	102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남북 경협의 새로운 분위기

**남** 북 경협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다. 지난 6월 서해안 교전 이후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으로써 관광객은 1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기업인들의 방북도 다시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일단은 미사일 재발사 유예 가능성은 시사함으로써, 북미간 외교적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느낌이다. 변화무쌍한 북한의 태도를 생각할 때 언제 또 다시 남북 관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남북 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 경제가 9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對남한 경협 필요성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번호의 포커스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반도 동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특집에서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마무리한 후, 북한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다. 농업과 대외 무역 정책, 외자 유치 정책 등으로 나누어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과정과 전망·한계 등을 조망해보았다. 이는 북한과 경협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 정책 환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협정보에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을 조세제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조세 관행과 북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논단에서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첫번째는 대포동미사일 발사 1년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를 실었다.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연구위원은 북한의 재발사 여부에 따르는 한국과 그 주변국 입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후, 향후 우리의 대응 자세를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영태 연구위원의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이다. 김 위원은 청당 통합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견 수렴 방식 및 선거제도의 중요성, 정당의 지역성 탈피 등을 시사하면서, 준비된 통일만이 통일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분단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정쟁과 지역 갈등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우리 정당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편, 독자기고에서는 매일경제 신문사의 이봉호 기자의 “디지털시대와 북한 지역 경제 재건 전략”을 실었다. 여기에는 디지털시대라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북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참신한 전략과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8월에 들어 대화와 외교적 노력에 의한 타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는 9월에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베를린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폐리 보고서의 동시 발표 등 굵직굵직한 회담과 회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도 남북간 경협만은 여전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주길 기대해본다.

1999년 9월  
편집자